

브라질의 대표적인 녹색기업 소개

BRASKEM

- 분야 : 석유화학
- 설립년도 : 2002년
- 종업원 수 : 6700명 (2009년)
- 매출액 : 349억 헤알 (US\$ 143억)

환경보호 관련 노력	성과
온실가스 배출	7.3% 감소(2009/2008)
보건, 환경 분야 투자	1억 200만 헤알 (US\$ 5880억)
오수배출 배출 (2009/2008)	13% 감소
그린 플라스틱 개발	그린 플라스틱 1톤 당 이산화탄소 2.5톤 감소

석유화학 분야 세계 8위 Braskem은 브라질 대표 건설사 중 하나인 Odebrecht 그룹 산하 기업으로 “석유화학은 공해산업”라는 이미지를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업체이다. 동시에 2020년까지 석유화학 분야 세계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. Braskem은 5억 헤알을 투자하여 리오 그란데 도 수르(Rio Grande Sul) 주 트리웅포(Triunfo)지역에 세계 최초 “그린 플라스틱” 공장을 설립하였다. 동 공장은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한 에탄올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드는 공장으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

Natura 화장품 샴푸 포장 용기 (그린 플라스틱 사용)



Braskem은 또한 1억 헤알을 투자하여 바이아(Bahia) 주 카마사리(Camacari) 지역에 ETBE(에탄올 베이스 윤활유)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. ETBE는 메탄올 베이스 윤활유 MTBE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. 현재 MTBE는 세계 다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.

CPFL

- 분야 : 전력 발전 송배전
- 설립년도 : 1912년
- 종업원 수 : 7450명 (2010년)
- 매출액 : 157억 헤알 (US\$ 90억)

환경보호 관련 노력	성과
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	6억 4600만 헤알 (US\$ 3억 7,242만) 절약
에너지 절약 프로그램	749000개의 백열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교체
재조림 사업	310000그루 식수
연료 절약	그린 플라스틱 1톤 당 이산화탄소 2.5톤 감소

CPFL는 전력분야 민간 기업 중 브라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수루(Rio Grande do Sul) 주와 파라나(Parana) 주, 미나스 제라이스(Minas Gerais) 주, 상파울루 주 일부지역 등 총 568개 도시, 208,300 km²의 면적에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이다. 동사의 송전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하는 화력발전소 건설,

전기 자동차 개발 등 친환경 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.

CPFL가 1억 헤알 상당의 재원을 투자하여 상파울루 주 피라수unga (Pirassununga) 지역에 건설한 Baldin 화력 발전소는 사탕수수 껍질 및 줄기 등으로 만든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. 동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45MW이며 CPFL사는 2012년까지 이 같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4개 더 추가로 건설하여 발전량을 230MW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. 이 회사는 또한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(Rio Grande do Norte) 주에 8개의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, 2012년까지 218MW의 전력을 풍력발전을 통해서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. CPFL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친환경 프로젝트는 전기 자동차 개발이다. 동사는 2006년부터 Fiat, Edra 등과 같은 업체들과 협력하여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. 

CPFL의 전기차



출처 : CPFL